

---

## 김문수의 '극우 본색' 은 숨길 수 없습니다

---

극우의 괴벨스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히틀러를 꿈꾸고 있습니다.

히틀러를 꿈꾸는 김문수 후보의 ‘극우 본색’ 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김 후보의 과거 발언들을 살펴보면, 그가 꿈꾼다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합니다. 김 후보의 과거는 혐오와 분열, 증오와 선동으로 얼룩져 있어 일일이 반박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입니다.

국민은 불안합니다.

2019년 12월 광화문에 선 김문수 후보는 전광훈 씨의 구속영장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딜 가든지 전광훈과 함께 있을 것” 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심지어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서는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 라며 광적인 찬양까지 했습니다.

김 후보는 광화문 광장에서 “빨갱이가 방송, 법원, 학교까지 모두 장악했다” 며 색깔론을 퍼붓고, “빨갱이는 물러가라! 기생충은 물러가라!” 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의 뜻과 의지에 함께 한다” 고 부르짖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도저히 믿기 힘든 수준의 참담한 언어였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또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부정선거라는 위험한 망령에 사로잡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전자개표기의 외부 통신 증거가 드러났다” 는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부정선거는 부패한 선관위 탓” 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폄하합니다. 또 승리한 자당의 선거를 향해 “이겼다고 해서 부정 선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며 앞선 선거들을 부정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극우 선동적 발언과 행동들은 결코 일회성 실언이 아닙니다. 그의 세계관과 정치 철학을 반영하는 일관된 모습입니다. 국민 통합은커녕 분열과 갈등, 증오와 혐오를 조장하는 ‘극우 선동꾼’ 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망언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은 김문수 후보 시리즈의 최종화 <극우 선동집>을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선동집은 김 후보의 끝없는 막말 퍼레이드를 생생히 증언합니다. “제주 4·3은 좌익 폭동”, “광주교도소는 좌익교도소”라는 역사 왜곡은 물론, 세월호 희생자들을 향해 “세월호는 죽음의 곶판”이라며 인간의 죽음을 조롱하고 짓밟는 그의 저급한 언어들, 그가 과연 국민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인지조차 의심케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선거가 시작되니 전광훈 씨와 “정치적 관계가 없다”, “교회도 요즘 안 나간다”며 슬그머니 발을 빼려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답은 여전히 회피하며 특정 세력과의 연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5.18을 3일 앞둔 15일에는 전두환 신군부의 핵심, 정호용 씨를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임명하려다가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에게 묻습니다. 광화문 광장과 국민들 앞에서 쏟아냈던 그 술한 극우 망언들에 대해 지금은 어떤 생각입니까?

전광훈 씨를 생각하며 눈물짓던 김 후보님! “전 목사와 어딜 가든 함께 하겠다”던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본인 당이 승리한 선거 결과조차 믿지 못하는 부정선거론에 대한 생각은 아직 그대로입니까?

광화문의 망령과 완전히 결별할 자신이 없다면, 대통령 후보의 자격부터 내려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은 극우 세력의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는 반드시 선동꾼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민은 ‘극우의 나팔수’가 내뿜는 저급한 선동 정치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5월 16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